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음 10월 27일) 제19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서남대 폐쇄 통보... 대책 마련 분주

(교육부)

마땅한 재정기여자 물색 못해
유성엽 의원, 대학 정상화
대체시설 건립 등 검토 요구

유성엽 국회의원(교문위원장, 국민의당, 정읍·고창)이 13일 교육부에서 '서남대 폐쇄명령'에 대해 정상화 및 대체시설 건립방안들을 검토 요구했다.

교육부가 비리사학 서남대에 대해서 내년 2월 '폐쇄' 통보를 내리고, 2018년 신입생 모집정지를 명령을 함에 따라 유 의원이 나선 것이다.

서남대는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에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재정기여자를 물색하지 못해 부득이 '폐쇄명령'에 이른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결정은 신입생 모집 정지와 함께 재학생들의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써,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유 의원은 "이날 이후로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해 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 정상화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수확의 기쁨, 추위도 몰라요 13일 군산시 개정면의 한 연근밭에서 농민들이 추위도 잊은 채 연근을 수확하고 있다.

사업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비리사학의 청산재산이 비리주범의 다른 학교법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

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부득이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교되는 서남대를 대체하기 위한 '의대중심 교육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 상실감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진성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신입기자(취재, 정규직)	본사 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2017 전북방문의 해 다녀간 사람은 3440만명

도, 11월까지 잠정 집계... 목표치 3500만명 근접

2017 전북방문의 해인 올 11월까지 전북을 다녀간 관광객을 잠정 집계 결과 총 3,440만명의 국내의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목표로 삼았던 3,500만명에 근접하는 수치로 이번 달(12월)까지 감안(집계)하면 목표치를 웃도는 결과이다.

전북도는 지난 상반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와 'FIFA U-20 월드컵'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올 해를 '2017 전북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4개 국제행사 등 30개 세부사업을 마련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017 전북방문의 해 운영은 다양한 국제행사 연계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전북을 홍보함으로써 전북 관광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주요 목적이었다. 전북도는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낮았던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 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전북도를 알리는데 힘썼으며 숙박 등 관광 인프라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관광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했다.

최근 전북도는 AI,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금형령으로 단체관광객 급감 등 관광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4개의 국제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볼·가을 여행주간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추석 황금연휴를 활용한 홍보로 타 시도에 비해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현재까지 30개 세부 실행과제 중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FIFA U-20월드컵 대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제18회 전주 국제영화제 등 4개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취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강인철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사진)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강 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언제나 경찰 동료들과 호흡하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할 수 있는 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찰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시기다"라며

"우리 경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도민의 신뢰와 지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낳고 길러준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에 대한 애정도 표현했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경찰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지켜 선거가 도민의 축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말 경찰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최근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이를 위해 범죄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전북 전주교과서 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5년 8월 경정 특채(사법시험 34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남 무안경찰서장, 경찰청 법무과장, 서울 중앙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차장, 광주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민 기자

도내 4개 지역 '한파주의보'

전주 기상지청이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입실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다. 앞서 전남인 12일 오후 6시 무주, 진안, 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전북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4개 지역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거나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최저기온은 무주 -14도, 진안·장수 -13.8도, 임실 -12.9도, 남원 -11.4도, 순창 -11도, 익산 -9.3도, 군산 -8.5도, 김제 -8.4도, 전주 -7.3도, 부안 -7.1도, 고창 -5.8도 등이다. 전주 기상지청 관계자는 "14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www.imseolgun.com

임실군이 최고의 품질을 '이웃속합니다'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이웃속합니다
임실수蜜桃

열매의 고장 임실이 빚어낸 보물, 농축산물!